

전남교육청, 美 트로이대학에 '글로벌 K-에듀센터' 개소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결실... '전남 인재 양성 거점' 기대 공동교육과정·산학 연계 인턴십·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미국 엘라배마주 트로이대학교에 '전라남도교육청 K-에듀센터'(이하 K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K센터는 2024년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후속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곳은 전남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배우는 '글로벌 교육 플랫폼'이자,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국제교류 넘어, '글로벌 교육 플랫폼' 확장

K센터 설립의 시작점은 2019년 전남체육중·고등학교와 트로이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전국체육대회 수상 등 실적 위주의 엘리트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서, 학업 의지, 인성, 언어능력 등 다양한 성장 가능성을 갖춘 학

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교류 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층 다양화했다. 스포츠, 역사, 문화, 언어 교육은 물론, 현지 한인 3세와의 교류, 트로이대학교 교수진이 운영하는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 등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성장의 폭을 넓혔다.

특히 2024년 5월 개최된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를 계기로 전라남도교육청과 트로이대학교 간 협력 관계는 전남 전체 교육 영역으로 전면 확장됐다.

양 기관은 이후 약 1년간 긴밀한 협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에 K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앞서 지난 4월 21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회 세계한인체육대회'에 참석한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K센터 개소를 공개 표명한 바 있다.

■ K센터, 글로벌 미래교육 거점 기대

K센터는 미국 트로이대학교 국제학생센터 내에 문을 열고, 전남교육청 소속 직원 3명이 상주하며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한다.

트로이대학교는 1887년 설립된 미국 남부의 주립 종합대학으로, 약 60개국 이상의 다양한 유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마케팅, 행정, 경영, 회계 등 분야에서 미국 내 우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30개 이상의 100%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 국제화에 강점을 지닌 대학으로 손꼽힌다.

K센터에서는 ▲ 체육계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 글로벌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 국내외 산학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 스포츠·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 전남미래교육재단 '꿈실현금' 조성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엘라배마주와 인접한 조지아주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어, 학생들은 첨단 자동차 생산 현장에서 스마트 제조, 품질 관리, 마케팅 등 실무 경험을 쌓으며 미래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일 'K-웨이브 데이'(K-WAVE DAY)를 운영하며 한글, 한복, 한식, 태권도



등 한국 문화를 현지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전남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에 참여해 세계시민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 전남-엘라배마 '의(義) 정신'으로 연대

학생 간 문화 교류뿐 아니라, 전남과 엘라배마는 '정의와 용기', '공동체 정신'의 역사적 가치 위에서 더욱 깊은 연대를 잇는다.

엘라배마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셀마 행진 등 흑인 민권운동의 중심지였으며, 전남은 동학농민운동, 항일독립운동, 5·18 민주

화운동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지역이다.

두 지역의 이러한 공동 유산은 K센터 운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전남교육청은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스포츠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K센터를 중심으로 전남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공고, 삼성스토어와 함께 AI교육 실시



순천공업고등학교(교장 고재성)는 최근 AI 교실에서 삼성스토어가 주최한 '옛지있는 AI 클래스'행사가 진행돼, 디지털 콘텐츠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콘텐츠 분야 진로에 관심 있는 1·2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실습형 콘텐츠 제작 활동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권영희 EID 컨설팅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진행됐다. 권 대표는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흐름을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숏폼 콘텐츠의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지도했다. 강의와 실습에는 삼성전자가 제공한 갤럭시 플드3가 활

용돼, 최신 스마트기기를 통한 현장 체험의 효과를 더했다.

학생들은 개별 실습을 통해 AI 기반 콘텐츠 주제를 정하고, 관련 이미지·텍스트 자료를 생성하거나 추천받은 뒤 숏폼 영상의 스토리보드를 완성했다. 이후 갤럭시 플드3를 활용해 직접 촬영을 진행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영상 편집까지 마무리하며,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를 만들어냈다. 현장에서는 제작된 영상들에 대한 발표와 상품 전달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 의욕을 높였다.

이번 행사는 AI와 숏폼 콘텐츠를 융합한 실습 중심 진로교육으로, 학생들이 미래 디지털 직업 세계를 경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학생들은 "AI가 콘텐츠 제작에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체험하며 진로를 고민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재성 순천공고 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진로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미래교육 콘텐츠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영광도서관, "관광의 세계' 진로직업특강으로 만나다"



영광도서관(관장 조정희)은 지난 9일 영산성지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특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

임병호 교수와 함께하는 진로직업특강 운영

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청소년들이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관광 분야의 직업 세계를 폭넓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강연은 임병호 교수(목포과학대학교 관광문화융합과)가 맡아 진행했으며, 임병호 교수는 '관광의 역할과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관광

의 개념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적인 여행과 관광의 차이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관광분야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관광숙박업 분야의 핵심 직업인 '호텔리어'의 역할과 자질, 여행업 분야에서 관광객과 직접 소통하는 '가이드'의 실제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영광=박효중 기자

나주 노안남초, 우유갑 1,200장 모아 탄소중립 실천

나주 노안남초등학교(교장 박명자)는 지난 7일,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의 일환인 '우유갑 수거 및 재활용'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전교생이 함께 참여해 학급별로 꾸준히 모아온 빈 우유갑을 자치회 학생들과 함께 정리하고, 이를 노안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여 종량제 쓰레기 봉투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1,200장의 우유갑이 수거되었으며, 이는 종량제 봉투 60장으로 환산되었다.

학생들은 매일 마신 우유의 빈 갑을 깨끗이 씻고 말려 모으는 습관을 실천해 왔고, 이러한 작은 노력이 환경 보호는 물론 자원 재활용의 소중한 결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나주=송준표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